



1 영국관광청, '감성 충전' 영국 정원 소개

영국관광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영국여행을 하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 온라인상에서 정원을 감상할 수 있는 가상현실(VR) 서비스를 최근 개시했다. 지금 당장은 여행을 갈 수 없지만, 자연과 아름다운 정원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을 위해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영국 대표 정원들을 소개한 것이다.

영국관광청이 소개하고 있는 대표적인 정원은 런던 중심부 서쪽의 큐가든을 비롯해 '오만과 편견'에서 '미스터 다아시의 가든'으로 알려진 철틀워스 하우스 가든, 헨리 8세 시대 역사의 흔적을 볼 수 있는 햄프턴 코트 가든 등이다. 윌리엄 왕자와 케이트 미들턴이 즐겨 산책하는 곳으로 알려진 켄싱턴 가든도 빼놓을 수 없다. 한편 영국의 가장 대표적인 첼시 플라워 쇼는 외출제한령으로 취소됐지만, 올해는 온라인으로 즐길 수 있도록 했다.

2 타이항공, 법정관리 통한 회생절차 밝기로... "운영 계속"

경영난에 몰린 태국의 국영항공사 타이항공이 법정관리를 통한 기업회생 절차를 밟게 됐다. 로이터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태국 내각은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뿌랏웃 판오차 총리는 내각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모든 측면을 고려해 회생 절차를 신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애초 타이항공 측은 경영난 해결을 위해 정부 지원을 요청했었다. 뿌랏웃 총리는 이어 "우리는 타이항공이 파산하도록 두지 않을 것"이라며 "타이항공은 계속 운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태국의 기업회생 절차는 해당 기업이 회생 신청을 하면 중앙파산법원이 법정관리인을 지정하고 이 관리인이 3개월 이내에 회생안을 마련하도록 돼 있다. 코로나19 사태 전에도 타이항공은 경영난이 심각했다. 2018년에 116억บาท(약 4천460억원)의 순손실을 기록한 뒤 지난해에는 120억บาท(약 4천614억원)으로 손실 규모가 늘었다. 그러나 코로나의 직격탄을 맞은 올해에는 상반기에만 180억บาท(약 6천921억원)의 순손실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3 캐세이퍼시픽, 승객 마스크 착용 의무화

캐세이퍼시픽 항공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모든 탑승객을 대상으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다. 마스크 착용 의무 조치는 추후 공지가 있을 때까지 시행된다. 승객들은 다른 승객과 2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기 힘든 상황 또는 직원이 요청할 경우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기내를 포함해 체크인, 라운지 이용, 탑승 절차, 항공기에서 내릴 때 등의 상황에서도 마스크 착용이 필요하다. 캐세이퍼시픽은 승객들에게 개인 마스크를 소지하고, 입국 심사장과 수하물 수취장 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권고했다. 단, 유아 및 어린이를 포함해 마스크 착용이 불편한 승객들은 예외다.



4 대한항공 국내선 탑승객, 마스크 착용해야

대한항공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국내선 탑승객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다.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역시 항공기 탑승객과 승무원의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있으며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해외 항공사도 늘어나는 추세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 국내선을 이용하는 승객은 기내에서는 물론 탑승 수속부터 탑승구 대기, 탑승 시 등 이륙 전 모든 과정에서 반드시 마스크 또는 스카프와 같은 적절한 안면 가리개를 해야 한다. 다만 24개월 미만의 유아,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제거하기 어려운 사람,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려운 사람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두기로 했다.

대한항공은 우선 국내선에 이를 적용한 뒤 향후 국제선에도 적용 여부를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대한항공은 모든 항공기의 기내 소독과 살균작업을 강화하고 인천에서 출발하는 모든 노선의 탑승객을 대상으로 발열 검사를 하고 있다. 또 객실 승무원에게는 방호복과 고글, 마스크 등 각종 보호장구를 지급하고 있다.

5 한국철도 "열차 탈 때 마스크 꼭 쓰세요"

한국철도(코레일)가 광역전철뿐만 아니라 KTX, 무궁화 등 모든 열차를 이용할 때 마스크를 꼭 착용하도록 권고했다. 한국철도는 역 창구와 공중화장실 등 이용객이 많은 공간에서 마스크를 꼭 착용하고 2m 이상 건강 거리를 유지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한국철도는 서울, 부산, 광주송정역 등 전국 8개 주요 역에서 손피켓과 현수막 등을 이용해 '열차 이용 시 마스크 착용' 권고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또 전국 역에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과 마스크 착용 문화 확산을 위한 현수막·포스터 등 안내문을 부착하고, 전광판이나 역·열차 안내방송 등 다양한 방식으로 홍보하고 있다.





1 호텔식 '승차 구매'...부산웨스턴조선 비대면 서비스

부산 웨스턴조선호텔은 호텔식을 가정에서 즐길 수 있도록 비대면 승차 구매(드라이브 스루) 서비스를 도입한다. 호텔 내 뷔페식당에서는 인기 그릴 메뉴를, 한식당에서는 웰빙 한식 상자를 각각 선보인다. 다이닝펍 오킴스에서도 훈제 연어를 비롯한 다양한 안줏거리를 승차 구매 메뉴로 내놓았다. 해당 메뉴를 구매하려면 하루 전 해당 식당에 전화로 주문한 후 현관에서 차량에 탑승한 채 받아 가면 된다. 20세트 이상 구매하면 호텔 직원이 배달도 해 준다. 호텔 관계자는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소비가 점차 늘어나고 있어 지속해서 테이크아웃 메뉴를 선보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2 신세계조선호텔, '그랜드조선' 브랜드로 부산·제주 공략

신세계조선호텔은 새로운 5성급 브랜드 '그랜드 조선'(Grand Josun)을 선보이고, 부산과 제주에 연내 호텔을 개장한다. 그랜드 조선 브랜드명에는 국내 최고(最古) 호텔인 조선호텔의 전통을 이어가면서 혁신을 통해 세계적 수준으로 도약하겠다는 포부가 담겼다고 호텔 측은 설명했다. 그랜드 조선 브랜드로 가장 먼저 선보이는 호텔은 해운대의 '그랜드 조선 부산'으로, 기존 노보텔 엠베서더 부산의 리모델링 작업이 끝나는 올해 8월 330실 규모로 문을 연다. 총 271실 규모의 '그랜드 조선 제주'도 12월 개장한다. 호텔은 제주 중문단지에 있는 컨싱턴 호텔 제주를 리모델링하고, 스위트 객실 50실을 추가했다. 두 호텔의 인테리어는 프랑스와 모나코에서 활동하는 디자이너 '움베르트&포예'(Humbert & Poyet)가 맡았다.



3 제주신화월드, 놀이시설·식도락 여행 패키지 출시

국내 최대 규모의 복합리조트 제주신화월드가 놀이시설과 식도락 여행을 한꺼번에 즐길 수 있는 패키지 상품 '올인월드'를 출시했다. '올인월드' 패키지는 5성급 호텔에서 누리는 여유, 여행의 즐거움을 더해주는 미식로드, 제주도 내 최대 규모의 테마파크, 워터파크를 예약 한 번으로 즐길 수 있는 상품이다. 5성급 호텔은 랜딩 리조트, 신화 리조트, 메리어트 리조트 3곳 중 선택 가능하며 조·석식은 모든 패키지에 포함돼 있다. 또 랜딩 리조트 예약 고객에게는 놀이기구와 신화테마파크 빅3이용권 2장, 신화 리조트와 메리어트 리조트 예약 고객에게는 테마파크 이용권 외에 워터파크 입장권 2장이 각각 제공된다. 2박 이상 투숙하면 텀블러, 디자인 노트, 목 베개 등 최대 5만원 상당의 기프트 세트를 제공한다. 예약 기간은 9월 28일까지, 투숙 기간은 5월 29일부터 9월 29일까지다.



4 더플라자·한화리조트, '아이 안심 클린존' 운영

한화호텔앤드리조트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호텔과 리조트 일부 객실을 '아이 안심 클린존'으로 꾸며 운영하고 있다. 또 더플라자호텔은 대표 객실인 '플라자 스위트'를 '퓨어 플라자 스위트'로 꾸며 가족 단위 고객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객실에는 독일 프리미엄 공기청정기 '나노드론'을 설치하고 항알레르기 기능이 있는 카펫 등을 배치했다. 한화리조트는 거제, 설악, 대전, 용인, 경주 리조트 내 뽀로로 객실을 아이 안심 클린존으로 지정했다. 클린존에서는 전문 업체의 도움을 받아 객실 내 설치된 미끄럼틀, 볼록 놀이 공간, 안전매트 등을 방역해 관리하고 있다.

5 서울신라호텔, '호캉스' 신혼여행 패키지 출시

서울신라호텔은 신혼부부를 위한 '어번 허니문' 패키지를 선보이고 있다. 서울신라호텔이 신혼여행 패키지를 선보이는 것은 5년 만이다. 해외여행이 어려워지면서 호텔로 신혼여행을 오는 새로운 흐름이 생기자 관련 상품을 다시 출시한 것이다. 패키지를 구매하면 야외수영장 '어번 아일랜드'를 온종일 이용할 수 있다. 또 신라호텔 베이커리 케이크와 영국 윌리엄 왕세손 웨딩 샴페인으로 유명한 '폴 로저'도 함께 제공한다. 객실 타입에 따라 뷔페식당 더파크뷰와 한식당 라연 등에서 음식도 제공된다. 상품은 이달 말까지 판매된다.

